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BOYBAND MURDER MYSTERY

가제 : 보이 밴드와 의문의 살인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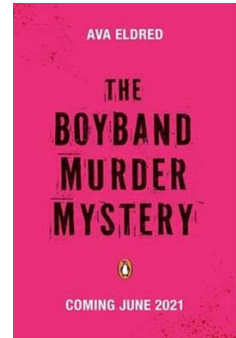
저자 : Ava Eldred

출판사: Penguin Children

발행일: 2021년 6월

분량 : 251 페이지

장르 : YA 스릴러



\* 러시아 판권 계약 완료 / 옵션 후 MGM사에 TV 옵션 계약

\* 『One of Us Is Lying』 및 『The Good Girl's Guide to Murder』의 팬을 위한 완벽한 살인 미스터리

해리와 해리의 친구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 밴드 '하프 라이트 (Half Light)'의 열렬한 팬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밴드의 리더 프랭키가 하루 아침에 살인범으로 전락하자 해리는 세상이 곧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해리는 프랭키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해리와 해리의 친구들은 과연 프랭키의 결백을 증명하고 당당히 자신들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커밍 아웃, 첫사랑, 십대 청소년들의 우정이 가진 복잡성등을 유쾌하게 그려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YA 미스터리 소설이다.

하프 라이트는 원래는 아주 평범한 소년들이었던 그들이 차고에서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난 후 그 영상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면서 탄생한 슈퍼스타 보이 밴드였다. 해리 역시 그 영상 덕분에 그들의 팬이 되었고 팬 활동을 통해 베를린, 런던, LA, 자신이 살고 있는 브라이튼 등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왓츠앱이나 페이스타임 통화를 통해 언제나 전화를 걸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같은 영국에 살고 있는 제스는 해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해리가 제스를 알게 된 건 바로 하프 라이트의 리더인 프랭키 윌리엄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새 남자친구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덕분이었다. 제스는 그 사진 아래에 자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무대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관심 없으며 더군다나 편협한 종교적 가치와 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리는 그 댓글을 읽은 그 순간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제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리는 평소처럼 제스에게 걸려온 페이스타임 전화를 받았고

프랭키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에반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최근에 프랭키가 새 남자친구 잭과 공개 연애를 시작한 후 에반과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어지긴 했지만 에반은 팬들이라면 다 알 정도로 프랭키의 모든 영광의 순간마다 함께한 친구였고 지난 주만 해도 둘이 같이 문신 가게에 있었던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그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프랭키는 파리 하나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해리는 프랭키가 억울하게 살인범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그 후 3개월 간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스와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년 간 하프 라이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분석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사들보다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건은 공연 리허설이 열린 한 스튜디오 옥상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프랭키는 스튜디오 안에 있었고 스튜디오 맞은 편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스튜디오 건물 옥상에서 에반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 한 게 사건 정황의 전부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 어디에도 프랭키가 그를 죽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해리는 제스를 만나 함께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는 길, 트위터를 켜고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가수인 피비가 프랭키를 응원하며 프랭키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다. 피비는 프랭키가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잭과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였다. 해리는 자신이 한 때 사랑했던 남자가 살해 용의자로 몰린 이 상황을 피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얼마 후 제스, 쟈마, 그리고 남자친구 스테판과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모인 해리는 CCTV 해킹을 통해 사건 당일 그 스튜디오에 프랭키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건물에서 나온 피비가 에반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 타고 올라갔던 건물 외벽 계단으로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해리는 이토록 피비가 명백한 용의자임을 증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왜 경찰이 스튜디오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프랭키를 대신 체포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리는 직접 피비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이 사실을 알리며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안한 사실은 프랭키가 에반이 추락한 시간인 5:37이 되기 2분 전 갑자기 스튜디오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피비는 답장을 통해 자신은 단지 오디션 준비를 위해 프랭키를 찾아가 안무 연습을 한 후 바로 집에 돌아갔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후 해리는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며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해리는 과연 자신들이 그저 ‘소녀 팬’이 아니라는 것과 프랭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흥미진진한 추리극이다.

#### <저자 소개>

애바 엘드레드 (Ava Eldred)는 런던 태생으로 10년간 무대 뮤지컬과 연극 작품의 극본을 맡았다. 그녀는 최근 Faber Academy에서 소설 쓰기 과정을 수료 했고 열렬한 보이 밴드 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LOVE IS A REVOLUTION

가제 : 사랑은 혁명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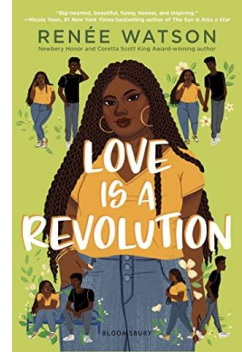
저자 : Renee Watson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21년 1월 2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성장



\*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이자 수상 경력을 가진 작가의 신작

\*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결정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날라의 여정을 그린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진솔한, 영감이 넘치는 이야기.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작품 『EVERYTHING, EVERYTHING』의 저자, 니콜라 윤

\* “시대를 초월한 소설. 날라의 목소리는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아마 지나왔거나 현재 겪고 있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NOT SO PURE AND SIMPLE』의 저자 라마 길즈

날라 로버트슨은 사촌이자 너무나 친한 친구인 이마니의 생일 잔치에서 열린 장기자랑 대회에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아직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던 날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타이 브라운에게 푹 빠져버렸다. 하지만 타이와 날라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고 날라는 그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과연 날라는 행복해 질 수 있을까? 플러스 사이즈에 흑인 소녀인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연애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날라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쁠 예정이었다. 날라의 할머니는 항상 날라에게 흑인 소녀에게 머리카락은 왕관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날라는 여름을 맞아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가발도 쓰고 싶었다. 또한 사촌인 이마니와 함께 공부하느라 보지 못했던 넷플릭스 시리즈들도 몰아 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구는 이마니와 애써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선 날라에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마니의 생일 파티에서 열릴 장기자랑 대회에 어떤 모습을 하고 가야 할지였다. 날라는 워낙 소심한 성격이었고 비가 오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한 머리로 그 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오직 이마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마니는 날라에게 사촌 그 이상이였기 때문이다. 열 일곱 살인 날라는 열 세살 때 엄마와 크게 싸우고 난 이후부터 이마니의 집에 와서 이모와 이모부를 엄마 아빠처럼 여기고 살았고 날라에게 이마는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자매나 마찬가지로였다. 게다가 가족의 고향인 자메이카에 놀러 갈 때마다 그곳 사람들은 이마니와 날라가 가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정도로 똑 닮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늘 두 사람에게 자신을 닮아 두 소녀가 너무

똥똥하다고 입을 뚫었지만 날라와 이마니는 그 말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이마니는 ‘인스파이어 할렘 (Inspire Harlem)’이라는 할렘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지역 봉사 활동 프로젝트와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마니는 자신이 생일 파티에서 열린 장기 자랑 대회를 통해 인스파이어 할렘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날라는 이러한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마니와 함께 인스파이어 할렘에서 활동하는 그녀의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일 파티에 가는 것이 더욱 꺼려졌다. 하지만 생일 파티 당일 날라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장기 자랑 대회에서, 인스파이어 할렘의 신규 멤버인 타이 브라운이 무대에 오른 그 순간 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장기 자랑 대회는 단순히 자기의 매력과 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닌 모든 예술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날라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와 랩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게다가 그는 날라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날라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름 동안 지역의 노인들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할 것이라는 둥, 타이와 마찬가지로 베지테리안 버거를 좋아하며 ‘페스코 페지테리언 (건강이나 환경, 개인적 신념을 위해 생선, 과일, 견과류, 곡물, 야채만 섭취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짓말까지 해버렸다. 그리고 얼떨결에 날라는 인스파이어 할렘 친구들의 뒷풀이 자리에까지 참석했다. 하지만 타이 옆에는 언제나 자신을 본체만체 하는 자타 공인 인기 소녀 토야가 딱 달라 붙어 있었다. 게다가 고기와 아이스크림,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 날라는 타이가 비건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또한 뒷풀이 자리에서 한 인기곡의 가사를 듣고 여성 혐오적이라며 누군가가 토론을 열자 날라는 그 가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날라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날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계인이 된 기분마저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토야는 그런 날라를 가르치려 들었다. 결국 날라는 예상대로 그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침묵할 수 밖에 없었지만 타이는 계속해서 날라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공예나 미술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날라가 그 프로젝트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했다. 날라는 타이와 가까워 지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하지만 날라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고 깊은 사랑의 한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아직 미숙한 많은 한 소녀가 첫 사랑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르네 왓슨 (Renée Watson)은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자랐고 글쓰기 학위를 받기 위해 뉴욕에 왔으며 현재는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다. 저작으로는 『Betty Before X』, 『Harlem's Little Blackbird: The Story of Florence Mills』, 『A Place Where Hurricanes Happen』, 『What Momma Left Me』 등이 있다.